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사원기관에 코스콤 신규 가입

등록 2025.02.27 10:34:21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자본시장 IT 인프라 대표 기관인 코스콤(KOSCOM)이 신규 사원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개최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사원총회에서 코스콤의 가입이 의결됐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사원기관은 9개로 확대됐다.

코스콤은 자본시장의 전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자본시장 IT 인프라 솔루션 리더'로 꼽힌다. 데이터 분석 및 보안 솔루션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진흥원은 코스콤의 기술력과 금융 데이터 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부산 파생·디지털 금융중심지 구성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명호 원장은 "이번 코스콤의 사원기관 참여는 부산 금융중심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스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부산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국내외 금융기업 유치 ▲유관기관 네트워크 ▲금융인재 육성 등 부산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사원기관으로는 부산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BNK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